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 사이의 쌍방실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차단물통로를 신속히 개설하고 타격대들로 차단물계선을 극복하면서 공격성과를 확대하려는 기계화련합부대들의 파감한 전투행동과 견고하게 설비한 차단물들

에 의거하여 강력한 화력타격으로 공격을 저지시키는 련합부대들의 완강한 방어로 하여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훈련장은 불도가니마냥 새차게 끓어번지였다.

훈련은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해치려고 피를 물고 날뛰면서 하늘에 대고 샅대질을 해대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매달려 죽을지 살지 모르고 너털거리고있는 원수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무자비하게 죽려쳐버리고 야말 인민군장병들의 치솟는 증오와 천백

배의 복수심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쌍방실동훈련의 우결함을 평가, 지적하시고 백두산훈련열풍을 새차게 일으킴으로써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판, 참모부 일군들의 주도성과 자립성, 창발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싸움마당에서 군인들을 승리로 불러일으킬수 있게 당정치사업을 전쟁환경에 접근시키는데 대한 문제,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도록 훈련강령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훈련총화를 전투총화처럼 엄격히 진행할데 대한 문제, 천연요새를 이루고있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조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임의의 계선에서 견고한 방어를 조직할수 있게 미리 준비할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훈련을 통하여 치렬하고 엄혹하며 맹목한 전쟁에 대처하자면 전쟁과 무관한 훈련, 전쟁환경에 맞지 않는 훈련, 형식주의, 고정적식화, 덧따기식훈련은 백번, 천번 해도 필요가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었다고 하시면서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은 주제적 전쟁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세우고 모든 훈련을 실용적실동훈련, 실용적두뇌훈련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부대의 전투임무수행의 특성에 맞게 작전과 전투를 능숙히 지휘할수 있도록 지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부글 부글 끓고있는데 맞게 인민군대에서 당의 훈련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새차게 일으킴으로써 당 제7차대회를 전투력강화와 싸움준비완성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제 인민군장병들이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총대로 담보해야 한다는 높은 자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수호전에서 자랑찬 공공을 펼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